

# 김영록 지사,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피해자 직접 만나 위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25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피해 근로자를 만나 "먼 타국에서와 낯선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면서 버텨왔는데, 이번과 같은 일을 겪게 돼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과 현장을 바꾸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우선 피해 근로자에 대해 이주노동단체를 통해 소통하며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즉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 4월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토대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응책을 한층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8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주 인권교육을 하고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가 발생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긴급생활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 쉼터'를 조성해 인권침해 등 위기 시

"이번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도와 현장을 바꾸는 출발점"

전남도, 쉼터조성·이동상담소 확대·제도개선 건의 등 실질대책 추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5일 나주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 나주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피해자와 면담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전하게 머물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고, 고용센터의 판단과 승인을 거쳐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인권침해

해 발생 시 즉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도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고용사업장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

계 강화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의 인권 감수성과 보호 체계를 되돌아보겠다"며 "전남도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 결혼이주여성-여성 상인 '네일아트'로 3년째 교류 베트남·중국·일본 등 5개국 모여 '다동애' 결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마을 '다동애(애)'가 3년째 여성 상인들과 네일아트 재능기부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동애'는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일본 등 5개국 결혼이주여성 20여 명이 모인 자조 모임으로, 지난 2018년 이주여성들 간 연대와 성장을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매년 여름 정기적으로 여성 희망장작소 '오후 3시, 나의 해방시간' 요가 교실에 참여하는 급남로 여성 상인들에게 네일아트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구 성평등마을 사업을 통해 4명의 결혼이주여성이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올해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마을에서 네일아트 심화 과정으로 기술을 숙련하고 있다. 동구는 이번 사업으로 전문적인 역량을 쌓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창업

에 도전할 예정이다. 손선화 대표는 "여성친화마을 사업을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이 창업을 꿈꾸고 그 경험을 지역 여성들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여성 상인들이 식당 일과 가사로 손 마를 날 없는데 잠시라도 자신을 돌보고 기분 전환할 수 있도록 매년 교류해 주는 '다동애'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다동애를 비롯해 올해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마을로 선정된 계림2동 새마을부녀회 '우리동네 안전수호대 원더우먼', 충장로 1·2·3가 상인회 '여성친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가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형 승강기' 사업을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광역시 의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함께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 광주시,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해 전력 재활용

올해 첫 도입...사시의회·한전·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약

을 위해 광주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전기 소비가 집중되는 아파트 승강기에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해 낭비되는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전력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시의회는 아파

트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전은 사업 운영 및 재정 지원을, 승강기안전공단은 기술·홍보 지원을 담당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민간 공동 추진을 통해 회생제동장치 설치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운행 시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다른 회로의 전원으로 재활용해 전력소비량을 10~30% 절감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승강기 하강 시 발생하는 전력을 방열판으로 보내 열로 소모했지만, 회생제동장치를 설치하면 이 전력을 인버터를 통해 공용전기로 변환해 건물 내 다른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다.

/박도일 기자

## 북구, 폭우 피해 복구 위한 '중앙합동조사단 현장 조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난 17일 쏟아진 폭우로 인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합동조사단' 주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27일 밝혔다.

'중앙합동조사단'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파견되어 지역에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와 실효성 있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조사단이다.

이번 중앙합동조사단은 최근 폭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북구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견됐으며 피해 규모가 광범위함에 따라 행안부·환경부·문체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다수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됐다.

광주·전남 지역 조사본부는 나주시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됐으며 이곳에서 조사단은 27일 오전 10시 피해조사 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

다. 북구의 현장조사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조사단의 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8월 중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조사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단의 현장 확인 시 북구 공직자도 구성된 현장 관리관을 동행시켜 피해 상황 설명, 관련 자료 제공 등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중앙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북구에 발생한 폭우 피해가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루빨리 북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 서구, 가족 중심 '행복학교' 졸업식 개최

부모와 자녀 성장 여정... 서구형 교육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

신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부모 행복학교'를 통해 미래교육 트렌드와 부모 코칭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 행복학교'를 통해 자연 속 도전 활동으로 문제해결력을 키웠다. 또 ▲'함께 행복학교'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인성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이번 나눔회는 참여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무대로 꾸며져 의미를 더했다. 부모 예시에 낭독을 시작으로 엄마와 딸의 듀엣 공연, 아빠의 깜짝 편지 낭독 등 가족이 함께 만든 무대가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다", "자녀와 나 자신을 동시에 돌아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등 행복학교가 단순한 교육을 넘어 가족의 변화를 이끈 계기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행복학교는 서구가 던진 미래 교육에 대한 도전이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거"라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다움과 함께 살아가는 힘이며, 그 길을 함께 걷는 것이 행복학교의 진짜 의미"라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